



# 12월 지육시세는 3,350원/kg 예상

금년 10월 서울 도매시장의 지육 평균단가는 2,783원으로 역시 금년 최저돈가를 기록하였다. 9월 서울 도매시장의 지육 평균단가 3,551원에 대비하여 768원이 하락하여 금년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낙폭은 도매시장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여러 가지 기록을 경신하는 2004년도도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상 최고의 돈가인 1999년도 지육 평균단가 3,016원을 훨씬 크게 웃도는 3,4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가장 높게 형성된 한 해였고, 8월 전국 도매시장 단가가 4,06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0원대를 돌파하여 금년 한 해는 기억에 남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무엇이 2004년의 돈가를 이렇게 높게 형성되게 만들었는가 돌아켜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많이 있다. 우선 조류독감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육류 소비패턴이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연초 쇠고기와 닭고기는 소비량이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돼지고기는 약 20~30%의 추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사상 최고의 돈육 소비량을 기록하는데, 거꾸로 돼지고기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의 감소를 보이며 수요폭증과 공급감소로 시장에서는 돼지고기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이고 그동안 삼겹살 선호로 찬밥 신세를 받던 뒷다리살과 앞다리살이 전년도 가격의 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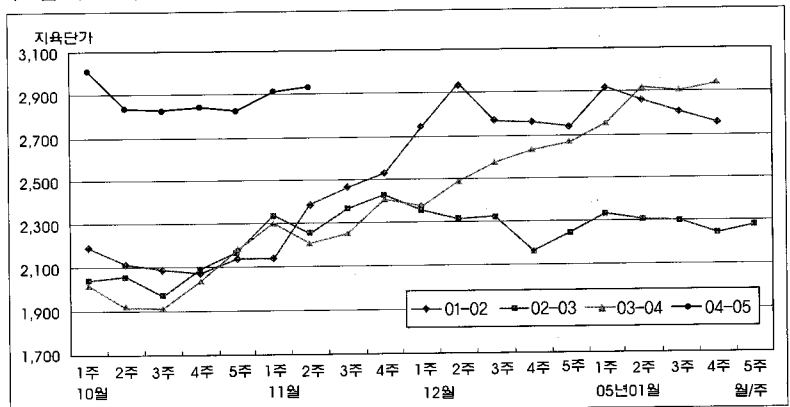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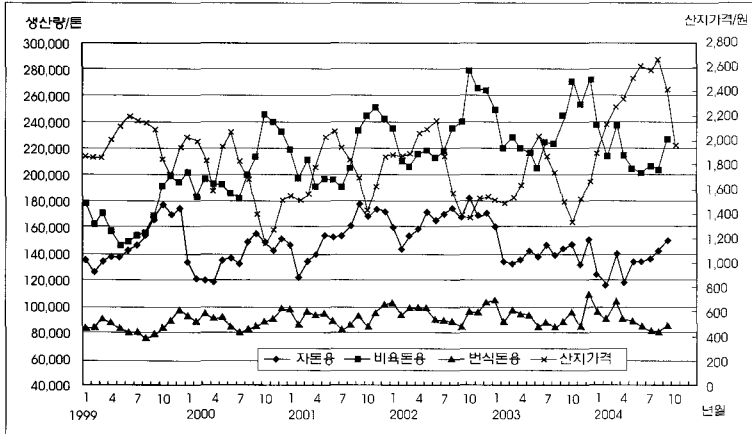
가까이 뛰면서 일찌감치 국내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1월 2,818원 이후 9월까지 3,000원을 훨씬 웃돌아 사상 최고의 돈가를 기록하여 금년 전국 도매시장 비육돈 지육단가가 3,400원을 넘게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2005년도 서울 도매시장의 지육단가는 어떤 양상을 나타낼 것인가. 우선 조류독감이나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타육류에서 돼지로 몰렸던 질병이 재발하지 않으면 돈육 소비가 계속 이어지는 한계에 온 것 같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지면 급격하지는 않더라도 쇠고기 수요가 늘고, 돈육 소비가 줄어들면서 금년보다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건축경기가 하강하여 돼지고기 선호 부위인 삼겹살이 50% 이상씩 판매되지 않아 재고로 쌓이고 덤핑판매 되거나 냉동으로 저장되는 등 소비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도 시장을 받쳐 주는 것은 삼겹살로 쓸렸던 소비가 값이싼 전·후지로 몰리면서 전년보다 두 배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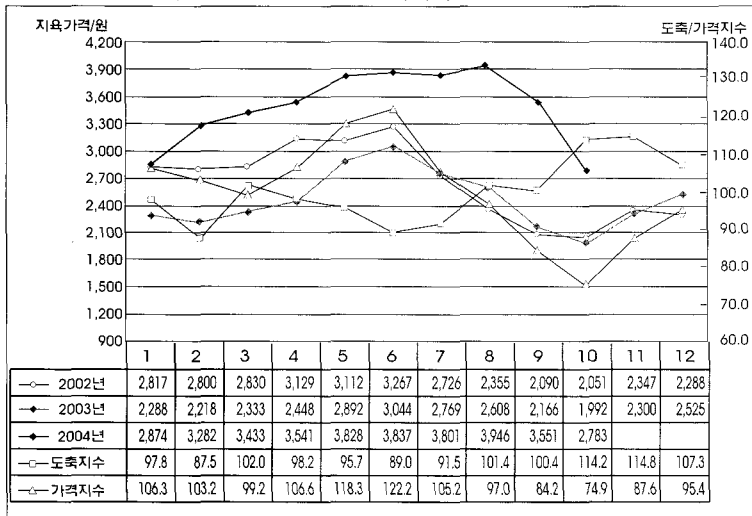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6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가격을 보이고 사상 최저의 재고량을 보여 전·후지 부족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돼지 가격의 하락을 막아줄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공급시장에서는 금년보다 돼지의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10개월 후의 돼지 공급량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모든 사료생산량은 내년도가 더 줄어들어 돈육 공급량도 내년 상반기가 약 4%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돈 사료생산량도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모돈수가 전년 동기대비 5% 줄어들고, 총사육두수가 금년 9월이 2002년도 6월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공

급의 감소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2005년도 전체 돈육 시장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 또한 감소가 예상되어 결국 금년 12월부터 2005년도 3월까지 4P(PRRS, PED, PMWS, PRDC) 등의 질병의 확산과 그 피해 정도, 미국 쇠고기 수입의 재개 시점에 따라서 돈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05년도 돼지가격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금년 12월은 돈육 수요량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달이 될 것이다. 유럽산 돈육의 수입금지선 전체 돈육 수입물량의 37% 정도 줄어들게 되어 부족한 국내산 돈육 값을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11월 상순에는 삼겹살과 목살의 소비가 줄어 약 생산량의

30~40%가 냉동 저장되고 있으나 삼겹살 등 선호 부위에 대한 할인행사와 전통적인 김장철 소비회복에 힘입어 다시 상승할 것이다. 매년 12월은 망년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회식자리가 많아서 삼겹살과 목살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11월 보다 돈육소비가 증가되어 돈가도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금년 12월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연말 회식증가에 따른 소비회복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여 3,350원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 같다. **양돈**